

국제原油價

하락과

石油수급 전망

OPEC의 3월 총회가 減産合意를 이루지 못하고, 輕質原油의 現·先物가격이 더욱 下落勢를 보이는 가운데 거래형태도 크게 변하고 있다. 최근 中東經濟研究所(日本)는 이러한 상황을 빚은 원인과 향후전망을 시장구조 및 수급동향과 관련하여 3월 6일 리포트에서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旬刊石油政策 3. 15字).

—大韓石油協會 調査課—

I. 要約

85년 11월말부터 국제原油시세가 下落局面을 맞고 있다. OPEC, 非OPEC 모두 增産을 함으로써 원유공급과잉이 심해진 때문이다. 그 가운데서도 사우디의 네트백運動방식에 의한 판매량 확대가 최대 원인이었다. 네트백原油에게 세어를 빼앗긴 現物원유시세는 급락했다. 현재의 석유시세 急落은 기본적으로 공급과잉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수요가 대폭 확대되든가 原油供給이 대폭 삭감되든가 하지 못하면 하락세를 면할 수 없다.

原油價가 배럴당 15~18달러로 낮아지면, 석유소비 절약노력이 약화되어 石油연료가 다른 에너지로 대체되어가는 전환추세도 일단 정지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原油의 가격경쟁력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원유가격이 상당한 수준까지 내려갔다고는 해도, 그것이 단기적이라면 석유需要의 회복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다. 때문에, 86년 自由世界の 석유수요는 4,610萬b/d정도로 전년대비 0.2%의 신장에 그칠 것이다.

그 결과, OPEC原油에 대한 수요는 非OPEC의 협조를 어느 정도 예상할 때 1,620b/d가 될 듯 하다. 특히 OPEC의 減産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北海油田이 협조한다 해도 1,670만b/d에 불과할 것이며, 이 경우에도 油價가 20\$/b를 크게 상회하지는 못할 것이다.

II. 急落하는 原油가격

국제원유시세가 85년 11월말부터 급락하기 시작했다. 北海 Brent油의 現物價格은 배럴당 11월 25일 30.65달러였으나 86년 2월 13일에는 16.30달러로 47%나 하락했다. 다른 原油의 現物가격도 2월에 들어서 20달러 이하로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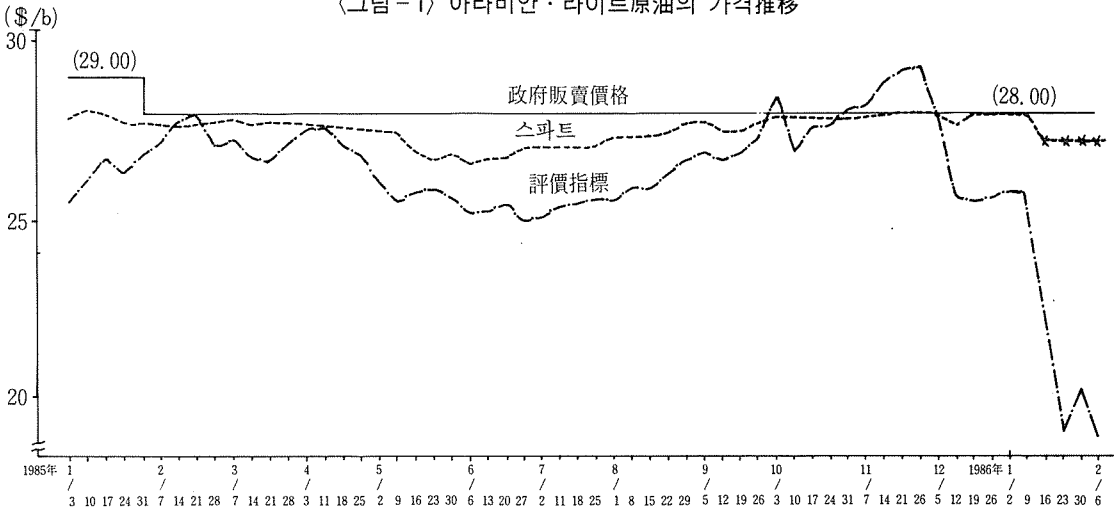
85년 4/4분기에는 전년대비로 OPEC이 3.5% 增産, 非OPEC도 3.3% 증산하여 原油의 과잉공급이 발생한 때문에 위와 같이 하락하게 된 것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원인은 사우디의 네트백販賣 확대에 있다.

85년 10월부터 개시된 사우디의 네트백販賣 확대는 1월초에 이미 170만b/d에 달했고, 2월에는 極東

지역에 대해서도 이 방식을 적용하여 총 네트백 방식 계약량은 260만b/d나 되었다. 사우디는 네트백 방식 판매량을 300만b/d까지 확대할 계획이다(MEES誌, 86. 1. 27). 현재로서는 사우디가 네트백판매 계약량을 감축할 기미가 없다.
네트백 방식으로 原油價가 설정될 경우, 원유가격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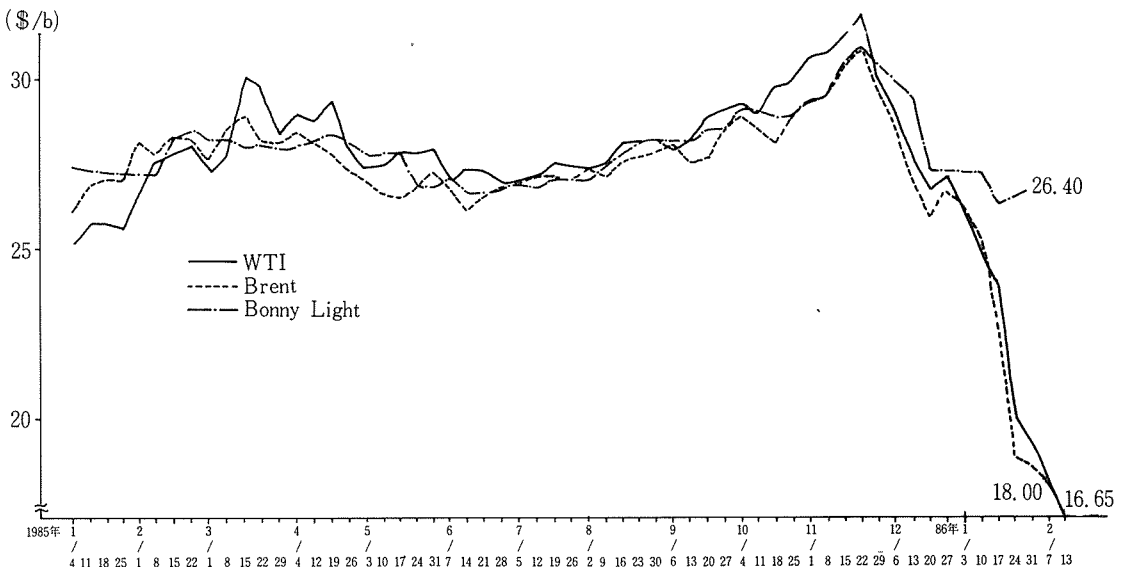
석유제품 가격에 링크된다. 따라서 精油會社는 제품 가격이 하락해도 그 제품가격에 알맞는 시장가격으로 原油를 조달할 수 있어서 原油-製品間 가격차에 의한 적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사우디의 네트백 방식은 原油의 일정기간공급계약이므로 現物시장에서 한 Cargo씩으로 原油를 조달하는 것에 비해 구

〈그림-1〉 아라비안·라이트原油의 가격推移



자료 : Platt's Oilgram Price Report
× : 1986年 1月 16日의 價格 (17日 이후 去來가 없기 때문임)

〈그림-2〉 輕質原油스파트價格動向



자료 : Wall Street Journal, AP·DJ

매자는 안정공급을 확보할 수 있다.

이처럼 現物계약보다 우위성이 있기 때문에 사우디 등의 네트백方式계약이 크게 확대되는 것이다. 이 현상을 美國시장에서 살펴보면, 사우디原油의 수입이 85년 3/4분기에 4,600b/d이었다가 4/4분기에는 364,000b/d로 대폭 늘어났다.

이에 비하여 現物市場에 연동하여 가격을 설정하는 北海原油의 수입은 3/4분기에 318천b/d에서 4/4분기에는 350천b/d로 약간 증가했는데, 美國의 原油수입 총량이 동기간 15.6%나 신장된 것을 감안할 때 北海原油는 美國시장에서 세어를 잃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같이, 사우디原油의 수입급증은 美國原油市況을 악화시키고 美國産原油(WTI)의 現物가격을 급락시키고 있다(〈그림-2〉).

이제 産油國들은 長·短期 公供給계약의 가격을 네트백方式으로도 결정하며, 當該月 現物가격에 연동시키기도 하고, 石油바터거래(물물거래) 시에는 공식가격에서 대폭 할인해 주기도 한다. 따라서 OPEC만이 아니라 全産油國의 GSP(정부공식판매가격)은 이미 무의미화되고, 장기계약 가격에 대한 産油國의 需

제력이 붕괴됨으로써 지금은 모두 시황에 연동하고 있는 셈이다.

85년 12월말 OPEC원유의 공식가격 가중평균은 28달러선이었으나, 국제 石油시세가 급락하자 장기계약가격은 86년 1월에 23~24달러로 낮아지고, 2월분에 대해서는 14~19달러를 産油國들이 제시하고 있다(〈表-1〉).

앞으로 1~2개월 사이에 OPEC의 내부 규율 강화(*産油쿼터 준수 등)와 공급량 재역제가 실현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OPEC와 非OPEC의 감산협조도 곤란할 것이다. 그러므로 春季 非需期를 맞아 원유시세는 20달러이하를 밀돌게 될 것이다. 현 하락세는 기본적으로 종래 이상의 공급과잉 때문이므로, 수요 대폭 증대나 공급감축이 나타나지 않는한 하락을 중지시키기 어려울 것이다.

Ⅲ. 石油需要의 현향 展望

1. 85년 자유세계 石油需要

1984년에는 지난 5년만에 처음으로 自由世界 석유수요가 2.3% 증가하였는 바, 이는 美國의 높은 성

〈表-1〉 장기계약 原油價格

(단위: \$/Bbl)

	GSP	1985年		1986年		備 考
		11月	12月	1月	2月	
〈사우디〉						
Arab Light	28.00	26.88	24.73	23.30	18.67	• 네트백 연동, 카고별로 결정 • 로테르담시장 기준 네트백 月 평균
Arab Heavy	26.00	26.00	23.86	22.13	16.15	
〈이 란〉						
Iranian Light	28.05			23.38	18.64	• 네트백 연동, Shell 등 총 70만b/d(86년) • 로테르담시장 기준 네트백 月 평균
〈UAE〉						
Murban	28.15			24.95	16.65	• ADNOC의 서드파티 판매분 • 1월부터 스팩트 평균 연동
〈오 만〉						
Oman		27.35	26.87	23.83	15.80	• 스팩트 月 평균에 연동
〈이집트〉						
Suez Blend		26.10	26.70	25.70 22.70 19.00 (1月 16日부터)		• 스팩트 연동
〈멕시코〉						
Isthmus		27.50	26.25	21.70	16.00	• 對美國 판매용
〈美 國〉						
WTI		27.58	27.60	25.20	22.85 22.35 (2月 12日부터)	• 메이저에 파는 公示價格

〈자료〉: PIW, MEES, Platt's

장률에 이끌린 세계경제의 확대와 英國 탄광노조 파업에 따른 重油소비 확대 때문이었다. 그러나 85년에는 다시 0.7% 감소(전년대비)된 4,600만b/d이었다. 國別동향은 다음과 같다.

美 國

中間溜分 수요는 84년에 5.8%나 신장되었으나 85년에는 경제성장률 둔화(잠정치로 2.4%)에 따른 산업활동 침체로 인해 그 신장율이 0.1%로 낮아졌다. 휘발유는 夏季수요기가 길어졌는데도 가처분소득이 침체되어 1.4% 증가에 그쳤다. 重油는, 1/4분기까지의 英國탄광노조파업 영향으로 한때 26.50\$/b 수준까지 높아지기도 하여 重油의 대체에너지화가 지속됨으로써 전년보다 12.6% 감소하였다. 결국 美國의 총수요는 原油베이스로 1,622만9천b/d로 0.5% 감소를 나타냈다(〈表-2〉).

日 本

경제성장률이 5%정도로 높게 유지되고 신규자동차 등록대수도 다소 늘어났으나 燃費효율성이 개선됨으로써 휘발유수요는 1.4% 증가에 그쳤으며, 中間溜分은 83/84년의 흑한으로 0.9% 감소하였다. 重油 수요는 원자력발전 가동율이 70%로 높았기 때문에 12.4%로 감소하였는 바, 重油소비 비중이 35%정도로 큰 日本으로서는 그 영향이 커서 총 석유수요가 5.9% 감소한 370만 3천b/d이었다.

西 歐

西유럽은 英國탄광노조 파업이 중단된 것에 큰 영

향을 받았다. 84년 2/4분기부터 85년 1/4분기까지 계속된 同파업으로 말미암아 그동안에 약 40만b/d의 수요가 증대되었다. 85년 1/4분기에도 비슷한 영향이 있었으나 연간 重油 수요는 전년보다 감소되었다. 휘발유와 中間溜分은 약간 증가세였으나 그보다 重油쪽의 감소분이 더 커서 총수요는 10.4% 감소로 나타났다.

프랑스에서는 原子力開發이 대체에너지화의 중심이므로 重油 소비가 18.8% 감소하였으나 다른 석유제품은 거의 전년수준이어서 총석유 수요가 2% 감소하였다. 한편 西獨과 이탈리아는 각각 2.6%, 0.6% 증가였다. 西獨은 2/4분기 이후 경제성장률이 전년을 상회하였으며 여름철 기온이 낮아 燈油 소비가 늘었기 때문에 中間溜分수요가 증대한 것이 주요인이다.

開發途上國

대체에너지화가 크게 진전되지는 않았으나, 최근 4~5년간 아시아지역의 GNP성장에 대한 에너지原單位가 계속 낮아졌으며(*기타 지역에서는 높아지는 편임) 各國의 석유 수요 신장율은 둔화 추세를 보였다. 開發途上國들의 85년 경제는 침체된 편이어서 총석유 수요는 1.5% 증가에 그쳤다.

2. 86년 需要전망-0.2% 增加

原油가격이 15~18달러로 내려가면 石油 소비절약 심리가 약화되고 대체에너지로의 전환도 정지되어, 原

〈表-2〉 석유수요推移(原油베이스)

(單位: 千b/d, %)

	1982	1983		1984		1985	
			(前年比)		(前年比)		(前年比)
美 國	15,823	15,786	△0.2	16,305	3.3	16,229	△0.5
캐 나 다	1,491	1,393	△6.6	1,385	△0.6	1,370	△1.1
日 本	3,789	3,814	0.7	3,934	3.1	3,703	△5.9
서 독	2,379	2,378	△0.0	2,388	0.4	2,451	2.6
프 랑 스	1,919	1,907	△0.6	1,840	△3.5	1,803	△2.0
英 國	1,585	1,545	△2.5	1,855	20.1	1,663	△10.4
이 탈 리 아	1,819	1,800	△1.0	1,743	△3.2	1,754	0.6
先進 7 개 國 計	28,805	28,623	△0.6	29,450	2.9	28,973	△1.6
他 OECD 諸 國	5,575	5,385	△3.4	5,355	△0.6	5,353	△0.0
開發 途 上 國	11,240	11,235	△0.0	11,480	2.2	11,657	1.5
自由 世界 合 計	45,620	45,243	△0.8	46,285	2.2	45,983	△0.7

註: 7個國은 各國 소비통계 月報에서 작성, 其他는 OECD統計와 BP統計에서 作成, 1984년 실적은 推定

油의 價格 경쟁력은 회복될 듯 하다. 그러나 하락세가 단기적이라면 石油수요 회복을 거의 기대할 수 없게 된다. 특히 大需要家로서는 低價수준이 장기적으로 안정된다는 판단이 서지 않으면 石油소비를 쉽사리 확대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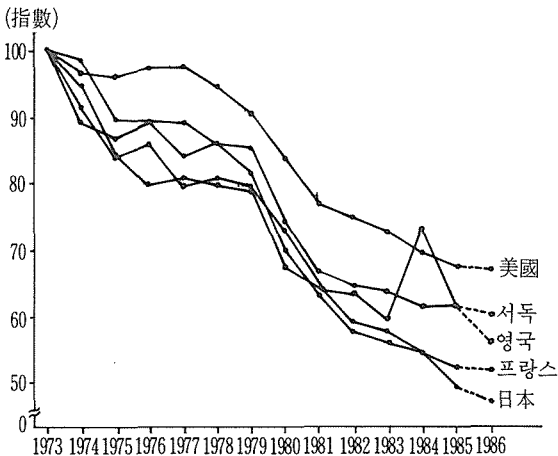
따라서 86년 自由世界 석유수요 예측에 있어서 최근의 油價하락으로 인한 수요회복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다. 본격적으로 그 효과가 나온다면 87년 이후가 될 것이다.

또한 原油價格이 15달러 수준이 된다 해도 先進國들의 경제성장율은 그 油價영향으로 86년에 0.2~0.3%밖에 상승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 이에 따른 석유수요회복효과도 86년에는 무시할 정도이다. 그러나 85년에도 여전한 石油소비 감소와 石油대체에너지로의 전환경향에는 브레이크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번에 상정된 油價下落 영향을 감안하면 석유수요의GNP原單位 감소율을 약간 둔화시킬 것이다(〈그림-3〉).

또한 최근의 석유수요는 국별·제품별로 상당한 跛行성을 보이기 때문에 이 분석에서는 선진 7개국을 국별·제품별로 상정했다. 선진국의 86년 성장율은 OECD의 豫測值(Economic Outlook 85.2月號)를 적용, 油價下落到 따른 成長增大分을 고려했다(〈表-3〉). 발전도상국에 대해서는 中南美, 中東, 아프리카, 아시아 등 地域別로 분석했다. 이상의 前提를 기초로 豫測한 결과는 〈表-4〉와 같다.

〈그림-3〉 主要先進國의 석유소비의 GNP原單位



〈表-3〉 OECD의 실질경제성장율

(前年比, %)

	1985	1986	參 考
		OECD 전망	原油價格 下落到 의한 影響
美 國	2.5	2.75	+0.18
日 本	5	3.5	+0.24
서 독	2.25	3.25	+0.64
프 랑 스	1	2	+0.14
영 국	3.25	2.25	+0.04
이 탈 리 아	2.25	2.5	+0.48
캐 나 다	4	3	+0.02
7 개 국 計	2.75	2.75	
기타 OECD	2.75	2.25	
OECD 計	2.75	2.75	

자료: OECD; Economic Outlook 85년 12月號 等

〈表-4〉 86년 石油수요 전망

(單位: 萬b/d, %)

	1985	1986	
		豫測量	1985年比
美 國	1,623	1,637	+0.9
日 本	370	362	△2.2
서 독	245	245	±0
프 랑 스	180	180	±0
영 국	166	156	△6.0
이 탈 리 아	175	176	+0.6
캐 나 다	137	135	△1.5
7 개 국 計	2,896	2,891	△0.2
기타OECD諸國	535	536	+0.2
開發 途 上 國	1,166	1,181	+1.3
自由世界 計	4,598	4,607	+0.2

美 國

경제성장율은 85년보다 높아지나 개인 소비신장율은 낮아져서, 또한 燃費效率개선도 계속 된다고 보여서 휘발유 수요신장율은 전년보다 낮은 1% 정도로 될 듯 하다. 中間溜分은 장거리 수송용 연료의 증가로 인해 신장율이 회복된다.

重油수요는, 油炭格差가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85년 8월 시점의 電力用으로 보면, 熱量 100만Btu 當 重油는 3.8달러, 石炭은 1.6달러임). 85년 시점으로는 86년에 12基의 原子力發電所가 운전개시될 예정이므로 이 점에서는 대체에너지가 멈출 것 같지 않다.

石炭과 原子力과의 가격경쟁력도 회복될 것 같지 않으나, 天然가스와의 경쟁은 가능할 듯 하다. 85년 1월에는 天然가스와의 價格差(電力用)가 100만Btu當 1.09달러이었는데 동년 8월에는 45센트까지 축소되었다. 이 결과 重油 수요의 감소율은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美國의 석유 수요는 전년보다 1%정도 신장될 것이다.

日本

경제성장율이 85년의 5%정도에서 86년은 3.5%로 둔화되기 때문에 휘발유 및 中間溜分 수요는 거의 현상유지일 듯 하다. 85년에 대폭 감소된 重油수요는, 86年中 原子力 등 非石油系 발전소의 운전계획(開始)이 없으므로 重油 수요 감소율은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石油 수요 전체의 감소율이 2%정도 둔화할 듯 하다.

西歐지역

이미 重油 가격은 天然가스 가격과 경쟁력을 갖고 있으며 英國에서는 國內炭보다 重油價格이 싼 편이다(PIW誌 85.2.3號). 그러므로 原子力 강화정책을 취한 프랑스 이외의 나라에서는 重油 수요 감소율이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타 제품들은 西歐 전체가 완만한 成長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석유 수요는 약간 증가할 것이다. 그 결과, 유럽의 총 석유 수요는 1,216만b/d정도로 되어 85년 1/4분기의 炭鑛 파업에 대한 逆 영향분 정도로, 약 1%정도 감소할 것이다.

開發途上國

中南美에는 채무국, 中東은 장기불황하의 產油國이 많고 아시아는 경제성장이 둔화할 것으로 보여 석유 수요 신장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85년보다 낮은 1% 증가에 머물 것이다.

86년의 자유세계 石油수요動向은 근래 수년간 계속된 重油수요의 감소추세가 요즘의 油價때문에 멈출 듯 하나 대폭 증가는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러한 자유세계의 총 석유수요는 4,610만b/d가 되어 전년보다 0.2%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IV. 石油供給의 현황 및 86년 전망

1. 85년에 限界에 달한 OPEC 감산능력

OPEC의 原油생산량은 자유세계의 수요감소로 말

미암아 84년 1,743만b/d에서 85년에는 1,602만b/d로 8.1%나 감소하였다(〈表-5〉 참조). OPEC 전체로서는 거의 生産上限(1,600만b/d)에 이른 것이지만 OPEC諸國이 일률적으로 감산한 것은 아니다.

전쟁 당사국으로서 9월에 사우디經由 파이프·라인(50만b/d)으로 수출능력을 확대시킨 이라크는 전년대비 15.5%나 증산하였다. 어느나라 보다도 증산요구가 많은 나이지리아도 2.3% 증산하였다(同國의 84년 생산증가율은 14%이었음). 페르시아灣을 제외한 OPEC의 85년 생산량은 645만b/d로 전년보다 3.1% 줄어들었으나 이 물량은 그들의 현재 생산쿼타인 602만b/d를 크게 상회하는 것이다. 그들은 84년 10월말 제71차 OPEC총회에서 감산을 결정할 때부터 감산이 곤란하다고 주장했었다.

한편, 페르시아灣 諸國중 쿠웨이트, UAE, 카타르는 생산량이 줄어들었으나 各國의 생산쿼타를 초과한 것이다. 이란도 역시 거의 생산쿼타에 가깝게 생산하여 전년보다 4.8% 늘어났다. 이들 페르시아灣 나라들도 이미 감산능력은 없게 되었다.

그러한 가운데 사우디의 85년 產油量은 347만b/d로서 전년대비 25.8%나 줄었으며, 生産쿼타보다 거의 100만b/d나 상회하였다. 이는 非수요기인 2/4, 3/4분기에 300만b/d 이하로 대폭 감산했기 때문인데 8월에는 235만b/d까지 낮추었었다. 產油量 축소로 말미암아 사우디石油 收入은 84년 343억달러에서 85년에는 약 250억달러로 떨어졌으므로 국내경제면에서 사우디의 감산능력도 한계에 달했다. 사우디는 85년 7월 OPEC 石油相 회의에서 Swing Producer 역할을 포기, 4/4분기에는 평균 431만b/d까지 증산하였다.

82년 이후 4~5%대의 증가율을 보였던 非OPEC의 85년 산유량은 2,262만b/d로 역시 증가하였으나 그 증가율은 전년대비 3.6%로 둔화되었다. 그 주요인은 종래 10% 내외의 증가율을 보였던 英國의 산유신장율이 85년에는 1%로 둔화했다는 점, 그리고 83년 3월 OPEC이 基準原油價를 5\$/b 이하한 이래 自國수출량을 150만b/d로 결정하여 OPEC에 협조해온 멕시코가 산유량을 전년보다 0.9% 감소시켰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한편, 신흥 小產油國의 대두가 현저하다. 印度와 앙골라는 16.1% 및 10.1%씩 생산량이 신장되었다. 또

(表-5) 自由世界 原油生産量

(單位: 千b/d)

	1983	1984	1985						OPEC	生産量(1985年)
			1 Q	2 Q	3 Q	4 Q	年平均	前年比	割當量	-割當量-
사 우 디	5,053	4,684	3,940	2,935	2,713	4,309	3,474	△25.8	4,353	△879
이 란	2,467	2,174	2,100	2,300	2,233	2,483	2,279	4.8	2,300	△21
이 라 크	893	1,210	1,300	1,320	1,473	1,494	1,397	15.5	1,200	197
쿠 웨 이 트	1,084	1,156	1,157	968	947	937	1,002	△13.3	900	102
U A E	1,119	1,159	1,100	1,083	1,117	1,213	1,128	△2.7	950	178
카 타 르	295	396	292	297	300	299	297	△25.0	280	17
(灣 岸 計)	(10,911)	(10,779)	(9,889)	(8,903)	(8,783)	(10,735)	(9,577)	(△11.2)		
알 제 리	685	608	652	633	633	654	643	5.8	663	△20
리 비 아	1,020	1,091	1,033	1,057	1,000	1,091	1,045	△4.2	990	55
나이지리아	1,240	1,414	1,593	1,367	1,267	1,555	1,446	2.3	1,300	146
가 봉	150	450	150	150	150	150	150	0.0	137	13
베네수엘라	1,790	1,711	1,675	1,678	1,670	1,653	1,669	△2.5	1,555	114
에콰도르	235	258	271	271	270	281	273	5.8	183	90
인도네시아	1,286	1,423	1,336	1,167	1,200	1,177	1,220	△14.3	1,189	31
(OPEC計)	(17,317)	(17,434)	(16,599)	(15,226)	(14,973)	(17,296)	(16,023)	(△8.1)	(1,600)	(23)
美 國	8,656	8,759	8,928	8,925	8,891	8,932	8,919	1.8		
캐 나 다	1,384	1,434	1,450	1,459	1,435	1,512	1,464	2.1		
北 海	2,991	3,299	3,494	3,316	3,345	3,517	3,418	3.6		
멕 시 코	2,690	2,751	2,710	2,723	2,744	2,723	2,725	△0.9		
오 만	375	415	447	480	502	507	484	16.6		
이 집 트	718	827	917	886	890	851	886	7.1		
말레이시아	387	433	465	450	420	397	433	0.0		
其 他	3,517	3,910	4,111	4,186	4,239	4,632	4,292	9.8		
(非OPEC計)	(20,718)	(21,828)	(22,522)	(22,425)	(22,466)	(23,071)	(22,621)	(3.6)		
自由世界計	38,035	39,262	39,121	37,651	37,439	40,367	38,644	△1.6		

자료: OGI, PIW 各號

한 말레이시아, 오만, 이집트의 생산량도 각각 0.0%, 16.6%, 7.1%의 증가율을 보였는데 오만과 이집트는 연중 내내 OPEC에게 비협조적이었다.

소련의 산유량은 83년 이후 감소하고 있는데 85년에는 1,191만b/d(前年比 2.6% 감소)이었다. 中共은 9% 증가한 247만b/d를 생산, 이와 관련하여 共產國에서 西方으로의 순수출은 17만b/d 정도가 줄어들었다.

石油수요가 감소하는 가운데 共產圈에서의 순수출량이 줄어들고 非OPEC의 생산량은 여전히 증가, 또한 原油재고도 연간 22만b/d가 방출됨에 따라 自由世界 석유공급의 OPEC몫은 84년 37.7%에서 85년에는 34.8%로 낮아졌다. 그러나 OPEC으로서는 그

이상의 減産能力은 없고, 85년 12월 제76차 총회에서 종래의 價格維持政策을 포기하여 供給率 확보정책으로 轉換할 것을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2. 供給過剩感이 없어지지 않을 86年

85년 12월의 OPEC총회에서 “公正한 세어”방위가 채택된 후 OPEC는 2월 3일 세어防衛委員會를 열었다. 同위원회는 聲明은 公정한 세어가 現행 생산 제한선 1,600만b/d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OPEC 내부에서도 의견이 대립되어 이란·리비아·알제리 등 강경파가 사우디의 再減産을 요구하고 있음에 反해, 사우디·쿠웨이트·UAE 등 페르시아灣 岸國은 價格戰爭을 견뎌낼 수 있는 재정 및 생산능

〈表-6〉自由世界 1986年 石油供給 전망

(單位: 百萬b/d, %)

	1984	1985		1986	
			前年比		前年比
〈需 要〉	46.3	46.0	△0.6	46.1	0.2
〈供 給〉					
非OPEC·NGL	27.3	28.1	2.9	28.5	1.4
共產圈純輸出	1.8	1.7	△5.6	1.4	△17.6
在庫變動(△積增)	△0.2	0.2	-	0.0	-
〈OPEC原油需要〉	17.4	16.0	△8	16.2	1.3

註: 非OPEC·NGL에는 OPEC·NGL을 포함.

력이 있기 때문에 세어경쟁이 석유순수출국의 장기적 생산정책 확립, 油價의 적정화를 향한 유일한 수단이라고 주장한다(MEES誌 86. 2. 10號).

한편 非OPEC諸國에서는 英國 北海의 1井戶當 산유량이 83년의 5,900b/d에서 85년에는 4,000b/d로 낮아졌을 뿐만 아니라 확인매장량도 85년 1년동안에 5억9,000만배럴 줄어 들었으며, 油價하락으로 신규油田개발도 추진되지 못할 것이므로 86년에는 能力的 限界에서 약 3만b/d정도 약간 감소할 듯 하다. 그러나 그 양은 OPEC의 쿠웨이트 石油相이 요구하는 30만b/d의 감산량(APDJ 86. 2. 9)에 비해 너무 적은 양이다. 또한 英國政府는 협조 감산을 거부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다른 產油國들이 감산한다면 自國도 감산에 응한다고 하였다(APDJ 86. 2. 19). 이집트는 실제 그런지 의문이지만 61.5만b/d로 감산했다고 한다. 그러나 말레이시아는 OPEC의 價格安定(회복) 노력이 없으면 증산하겠다는 입장이며, 멕시코도 150만b/d의 수출상한규모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MEES誌 86. 2. 17). 오만은 앞으로 5년간 50만b/d생산량을 유지하겠다고 한다.

또한 85년에 대두한 신흥小產油國 중에는 브라질처럼 石油수입국인 경우가 많아 감산을 기대할 수 없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OPEC와 非OPEC의 협조 성립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非OPEC의 생산량은 NGL을 포함하여 2,850만b/d에 달해 85년보다 1.4% 증가할 것이다.

소련의 최근 산유량 감소는 구조적 요인이 있으므로 86년 생산량도 감소할 것이며, 中共은 油價 폭락 때문에 수출량을 늘이지 않겠다고 했다(APDJ 86. 2. 4). 그래서 86년의 共產圈으로부터 西方에의 순수출은 24만b/d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在庫변동을 보자면, 이미 85년에 아주 낮은 재고로 변했으며, 精油會社는 수시로 쉽게 原油조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86년 전체로 산출하면 재고, 즉 原油在庫 증가가 전혀 없을 것으로 보인다.

非OPEC공급량과 共產圈 순수출과의 합계는 2,990만b/d가 되며 연간 在庫變動이 없기 때문에 86년에 OPEC이 차지할 수 있는 세어는 1,620만b/d가 될 것이다(〈表-6〉).

그러므로 86년 1~2월의 OPEC생산이 1,800만b/d

로 나타나고 있어서 결국 공급과잉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현재로는 非OPEC의 전면적 감산협조를 얻을 수 없으며, 이러한 상태에서 OPEC이 石油市況을 회복시키려면 올 봄 非需要期에 전년동기보다 하회하는 1,400만b/d까지로 감산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데 사우디가 다른 產油國들로부터 아무런 양보도 얻어내지 못한채 종래의 Swing Producer 역할로 복귀하지는 않을 듯 하므로, 이제 市場에서는 OPEC 및 非OPEC產油國이 한데 엮여서 판매경쟁을 계속하게 된다. 사우디처럼 확고한 판매루트를 갖고 있지 못한 나라는 시장에서 脫落하는 상태로 수급균형이 조정되어 갈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低價경쟁이 전개되므로 原油의 자기계약의 평균가격은 더욱 내려가게 된다.

이번 분석에서 상정된 非OPEC 및 NGL 생산량 2,850만b/d 가운데는 北海油田을 제외한 非OPEC주요국의 감산협조를 감산하였다. 따라서 OPEC供給분이 1,620만b/d 이상으로 증대되려면 北海油田이 감산하는 경우 뿐이다. 가령 OPEC이 요구하는 30만b/d의 감산요구를 英國이 받아들이고 노르웨이도 이에 따른다면 北海油田에서 50萬b/d가 감산되어 OPEC供給原油는 1,670만b/d로 확대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北海油田이 감산하면 이를 계기로 OPEC이 내부규율 강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85년 산유량이 할당량을 초과한 나라는 증산을 억제시키고, 自國할당량에 못 미친 나라는 그 쿼터량까지 증산토록 한다면 OPEC공급분 1,670만b/d중 사우디가 380만b/d를 차지할 수 있다(〈表-7〉). 사우디는 할당량이 435만b/d이므로 380만b/d를 공급하기 위해 쿼터에서

55만b/d를 감산해야 하는데, 86년 1월 생산량이 380만b/d(MEES誌 86.2.17號)인 점으로 보아 그 정도의 감산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低位가격安定에 의한 石油 수요 喚起를 의도한 사우디가 이 시점에서 수급조정을 함으로써 價格回復 및 유지를 시도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OPEC의 現産油能力이 2,743만b/d이고 그들의 세어는 1,670만b/d로 된다는 구조에서 1,073만b/d의 과잉공급 能力을 갖고 있다. 사우디가 수급조정으로 價格回復을 시도한다 해도 OPEC諸國이 1,000만b/d 이상의 과잉공급 能力을 안고 있는 상황이므로 油價수준이 배럴당 20달러를 크게 상회하지는 못할 것이다. 또한 상당한 高價格 수준은 사실상 사

우디가 바라는 바는 아닐 것이다.

〈表-7〉 86년의 OPEC 供給량

(單位: 萬b/d)

OPEC 공급 몫 1,670	리비아	105
• 사우디 以外的 추정생산량	나이지리아	145
이란 230	가봉	15
이라크 170	베네수엘라	167
쿠웨이트 100	에콰도르	27
U A E 113	인도네시아	122
카타르 30	小計	1,290
알제리 66	사우디 공급 몫 380	

註: 사우디 以外的 추정생산량은 85년 실적으로 하되 生産쿼타에 못미친 경우는 쿼타를 推定하였다. 이라크는 쿼타 120萬b/d에다 사우디經由 파이프라인 輸出능력 50萬b/d를 가산함.

□ 海外石油産業短信 □

原油가격 急落到 타격받는

캐나다 石油·가스産業

原油價格의 하락이 캐나다의 石油 및 가스産業에 심각한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 임페리얼石油(엑슨係), 모빌오일·캐나다 등의 메이저係가 개발계획을 재검토하고, 투자사감의 움직임을 보인데 이어 民族係의 대명사 하스키石油도 대규모 일시해고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石油도 다시 위기에 빠지고 있고 資源이 풍부한 앨버타州를 중심으로 인원축소에 들어갈 석유회사들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하스키石油의 일시해고계획은 전종업원 1750명의 20%가 약간 못미치는 3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기간은 약 2주간으로 잡고 있다. 民族係 大會社로서는 처음으로 지방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큰만큼 앨버타의 주지사가 계획을 철회토록 설득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동石油의 경우는 原油 및 天然가스가격의 급락으로 자금회수가 악화되어 美·日의 융자은행에 채무상환연기를 요청하는데까지 이르고 있다.

國策石油會社 페트로·캐나다, 살페트로, 캐나다언록시·

케트롤리엄 등의 중·소석유회사도 금후 일시해고계획을 발표할 예정으로 있어, 앨버타州 이외에도 사스카츄완州, 뉴펀들랜드州 등의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 같다.

각 석유회사는 동부 大西洋연안에서의 原油 및 가스개발, 앨버타州에서의 오일샌드개발의 재검토 또는 계획연기를 밝혔다. 하스키石油은 금년도의 투자예정액 3억캐나다달러를 반으로 줄일 방침이다.

캐나다의 原油수출가격은 배럴당 美貨13달러수준까지 내려왔다. 이것은 美國用을 중심으로 하는 天然가스의 수출가격에 파급될 조짐이 있어, 西部諸州의 中·小가스생산회사나 파이프라인업자도 가스가격동향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러한 석유관련기업의 축소균형로선은 送油用파이프를 생산하는 철강업체에도 영향을 미쳐 중견의 이프스코社는 5백명을 일시해고하였다. 또 금번 1/4半期(85.11~86.1)의 영업실적을 발표한 여러 유력은행의 경우 석유관련기업에 대한 불량대출이 늘고 있다.